

현대 漢字語 辭典에 나오는 ‘郡望’의 의미 검토

安 光 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현대 시기에 들어와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郡望”에 대한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는 “郡望”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한 郡 단위 안의 望族’이라는 뜻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사 문헌에 나오는 “郡望”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그 “郡望”이 ‘한 郡 단위 안의 望族’을 의미하기 보다는 ‘遠祖의 本籍地’를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漢字語 辭典들에서 “郡望”이라는 용어를 정의 내리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典據들 또한 ‘遠祖의 本籍地’를 의미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漢字語 辭典 상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오류를 살펴보고, 아울러 그러한 오류로 인해 생겨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주제어] 本貫, 本貫制度, 郡望, 郡望制度

목 차

| | |
|-------------------|-------------------|
| I. 서론 | IV. 郡望의 의미에 대한 검토 |
| II. 典據에 대한 검토(1) | V. 결론 |
| III. 典據에 대한 검토(2) | |

I. 서론

중국 역사상 郡望制度는 魏晉 시기부터 唐나라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를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계층인 ‘門閥 士族’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이 門閥 士族은 유력한 몇몇 가문의 구성원들로,

*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 lose-angle@hanmail.net

1) 현재 역사학계에서 이 ‘門閥 士族’을 지칭하는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門閥 士族’을 지칭하는 용어를 학자 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Patricia Buckley Ebrey는 그의 저서에서 魏晉南北朝 시기의 지배 계층을 ‘貴族(Aristocrats)’이라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이전 시기인 漢나라 시기에 비해 ‘貴族 社會(Aristocracy)’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

이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며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있어 그 결정권을 거의 전유하다시피 하였다. 그리하여 때로는 서양 역사학자들의 눈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 존재하였던 ‘寡頭政治(Oligarchy)’와 유사하게 비춰지기도 하였다.²⁾

이 門閥 士族에 의해 지배된 사회에서는 그들이 속한 가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지위도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관직에 나아갈 때에도 그들이 속한 가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관직도 일정 범위 안으로 한정되었으며, 또 이들이 婚姻을 하려 할 때에도 그들 가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가문 안에서 그 대상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이 門閥 士族들은 그들이 소속된 氏族(- 중국사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家族’ 또는 ‘宗族’이라 부른다)을 밝히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그들의 姓氏와 함께 郡望을 칭하였다. 이를 중국 역사상 ‘5姓7望’이라 불릴 정도로 그 名望이 높았던 氏族들을 예로 하여 살펴보면, 隴西李氏, 趙郡李氏, 清河崔氏, 博陵崔氏, 太原王氏, 范陽盧氏, 그리고 滎陽鄭氏라 칭한 氏族들이 바로 바로 그들이었다.³⁾

러한 사실은 祖上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고 또 동일한 門閥을 소유한 貴族 사이에서만 婚姻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더욱 강화된 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Patricia Buckley Ebrey,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China*, Cambridge Univ. Press, 1996, 86쪽·91쪽). 또, Charles O. Hucker는 漢나라 시대부터 唐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는 ‘世襲 貴族(Hereditary Great Families)’ 계층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보고, 漢나라 시대의 ‘世襲 貴族’은 그 이전 시기인 周나라 시대의 ‘封建 貴族(Nobility 또는 Noblemen)’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4·5세기에 이르러서는 ‘士族 계층(Shih Class)’이 사회의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지만, 이 ‘士族 계층’은 ‘世襲 貴族’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Charles O. Hucker, *China's Imperial Past*, Stanford Univ. Press, 1975, pp.176~180). 宋俊浩는 그의 연구에서 한국의 兩班 계층을 魏晉南北朝 시대의 지배 계층과 비교하여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언급하면서 魏晉南北朝 시대의 지배 계층을 ‘門閥 貴族’이라 부르고 있다(그는 이러한 견해를 그의 연구 곳곳에서 언급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朝鮮社會史研究』, 一潮閣, 1987, 490쪽을 참고). 또, 宮崎市定, 川勝義雄, 谷川道雄과 같은 日本 학자들 역시 魏晉南北朝 시대의 지배 계층을 ‘貴族’이라 칭하고 있다(宮崎市定과 川勝義雄이 각기 집필한 平凡社 編, 『アジア歴史事典』 ‘九品官人法條(第2卷 391a~392b쪽)’와 ‘貴族條(361b~362a쪽)’, 平凡社, 1970. 그리고 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研究』, 同朋舍, 1977과 谷川道雄, 『中國中世社會と共同體』, 國書刊行會, 1976도 참고. 宮崎市定の 저서는 2002년 임대희 등에 의해 번역되었다).

이에 비하여, 錢穆은 그의 저서에서 魏晉南北朝 시기부터 隋·唐 시기의 지배 계층을 ‘士的新貴族’이라 부르고 있다(錢穆, 『國史大綱』(下), 北京, 商務印書館, 2008(11次印刷本), 561쪽). 또, 唐長孺는 그의 저서에서 魏晉南北朝 시기의 지배 계층을 ‘士族’이라 부르고 있으며, 馮爾康 역시 ‘士族’이라 칭하고 있다(唐長孺, 『士族的形成和升降』, 『魏晉南北朝史論拾遺』, 中華書局, 2011, 53~63쪽과 馮爾康, 『南北朝的宗族結構與士族社會特質論綱』, 『中國宗族制度與譜牒編纂』, 天津古籍出版社, 2011, 85~86쪽). 또 常建華는 그의 저서에서 ‘士族’ 그리고 ‘門閥 士族’이라 부르고 있다(常建華, 『宗族志』, 中華文化通志·制度文化典, 上海人民出版社, 1998, 5·26·30~35쪽). 이외에도 ‘世家大族’이라 칭하는 학자도 있다.

아울러, 魏晉南北朝 시기부터 唐 시기까지 士族 계층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와 그 의미에 관해서는 David G. Johnson, *The Medieval Chinese Oligarchy*, Westview Press, 1977, pp.5~17을 참고하길 바란다.

2) David G. Johnson, *The Medieval Chinese Oligarchy*, Westview Press, 1977.

3) 중국의 郡望制度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였다. 그 중 하나의 有名 氏族을 중심으로 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守屋美都雄, 『六朝門閥の一研究: 太原王氏系譜考』, 東洋大學學術叢書, 日本出版協同, 1951; 毛漢光, 『我國中古大士族之個案研究 - 瑯琊王氏』, 『歷史語言研究所集刊』 第37本, 下冊, 臺北, 中央研究院, 1967(中華民國56年). (이 논문은 후에 『中國中古社會史論』(上海書店出版社, 2002, 365~404쪽)에 재수록 되었다); David G. Johnson, *The Last Years of A Great Clan: The Li Family of Chao Chün in Late Tang and Early Sung*,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 1, 1977; Patricia Buckley Ebrey, *The Aristocratic Families of Early Imperial China: A Case Study of the Po-ling Ts'ui Family*, Cambridge Univ. Press, 1978; 夏炎, 『中古世家大族清河崔氏研究』, 天津古籍出版社, 2004; 王力平, 『中古杜氏家族的變遷』, 商務印書館, 2006.

이외에도 王仲榮, 『「新集天下姓望氏族譜」考釋』, 『敦煌吐魯番文獻研究論集』 第2輯, 北京大學出版社, 1983; 唐耕耦, 『敦煌四件唐寫本姓望氏族譜殘卷研究』, 『敦煌吐魯番文獻研究論集』 第2輯, 北京大學出版社, 1983이 있다. 그 밖의 연구에 관해서는

이처럼 門閥 士族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氏族을 밝히는데 있어 姓氏와 함께 郡望을 칭하는 관행은 일찍이 한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氏族들 역시 자신들이 소속된 氏族을 밝히는데 있어 光山金氏, 安東金氏, 潘南朴氏, 그리고 全州李氏와 같이 자신들의 姓氏와 함께 本貫을 칭하였는데, 이 本貫이 중국의 門閥 士族들이 칭하였던 郡望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⁴⁾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郡望에 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이 郡望이라는 용어가 각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원인으로 필자는,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 그 郡望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 이 郡望이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의가 합당한 典據 위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그 漢字語 辭典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郡望의 의미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典據에 대한 검토(1)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 가운데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漢字語 辭典들에서 郡望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와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典據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 漢字語 辭典들에서 郡望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면, 이 辭典들이 郡望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한 郡 단위 안에서 推仰받는 氏族'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辭典의 경우에는 이 氏族들이 주로 魏晉 시기부터 唐나라 시기까지 존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辭典들에서 郡望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郡望이라는 용어에서 '郡'은 중국 역사상 秦나라 시기부터 隋나라 시기까지 지방 행정 단위로 존재하였던 '郡'을, 그리고 郡望이라는 용어에서 '望'은 '名望 있는 氏族' 즉 '望族'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지방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4) 중국의 郡望制度에 관심을 가진 한국의 연구자로는 宋俊浩가 있다. 그는 한국 本貫制度의 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郡望制度(- 宋俊浩는 이를 두고 '中國의 本貫制'라 칭하였다)를 언급하며, 두 制度 모두 門閥崇尙의 社會風潮로 인해 생겨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宋俊浩는 이러한 견해를 그의 연구 곳곳에서 언급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연구가 『韓國의 氏族制에 있어서의 本貫 및 始祖의 問題』, 『朝鮮社會史研究』, 一潮閣, 1987이다). 또, 이수진 역시 중국 唐나라 시기의 郡望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그는 唐나라 시대의 '郡望表'(-이수진이 말하는 '郡望表'는 아마도 일본학자 池田溫이 그의 연구('唐代의 郡望表(上)-九・十世紀の敦煌寫本を中心として-', 『東洋學報』 42: 3, 1959와 '唐代의 郡望表(下)-九・十世紀の敦煌寫本を中心として-', 『東洋學報』 42: 4, 1960)에서 언급한 '郡望表'로 생각된다)가 고려 사회에 유입되어 고려 사회에서 本貫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이수진,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83쪽). 아울러, 崔珍烈 역시 중국사의 관점에서 郡望制度를 살펴보고 그 郡望制度가 한국의 本貫制度和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崔珍烈, 『隋唐 本籍地封爵의 性格-門閥·郡望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中國古中世史研究』 20, 中國古中世史學會, 2008; 崔珍烈, 『唐代 여성 爵號(邑號)의 性格-邑號와 本籍地·郡望의 關係를 중심으로 -, 『大東文化研究』 6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표〉 현대 漢字語 辭典에 나오는 郡望의 의미와 그 典據

| 辭典名 | 郡望의 의미 | 典據 |
|---------------------|--|--|
| 大漢和辭典 ⁵⁾ | 郡中の貴顯の氏族. 郡中の望族. | 『丹鉛總錄』: 虛高族望 起於江南 言今之百氏郡望 起於元魏 胡虜 何足據也. |
| 中文大辭典 ⁶⁾ | 郡中之望族也. | 『丹鉛總錄』: 虛高族望 起於江南 言今之百氏郡望 起於元魏 胡虜 何足據也. |
| 漢語大詞典 ⁷⁾ | 古稱郡中爲衆人所仰望的貴顯家族, 如隴西李氏·太原王氏·汝南周氏等. | 明 楊慎『丹鉛總錄·郡姓』: 虛高族望 起於江南 言今之百氏 郡望 起於元魏胡虜之事 何足據也. 清 錢大昕『十駕齋養新錄·郡望』: 自魏晉以門第取士 單寒 之家 屏棄不齒 而士大夫始以郡望自矜. 魯迅『吶喊·阿Q正傳』: 第四, 是阿Q的籍貫了. 倘他姓趙 則據現在稱郡望的老例, 可以照『郡名百家姓』上的注解, 說 是‘隴西天水人’也. |
| 漢韓大辭典 ⁸⁾ | 郡内の 望族. 한 郡에서 세력과 名望이 높은 氏族. | 明 楊慎『丹鉛總錄·郡姓』: 虛高族望 起於江南 言今之百氏 郡望 起於元魏胡虜之事 何足據也. 清 錢大昕『十駕齋養新錄·郡望』: 自魏晉以門第取士 單寒 之家 屏棄不齒 而士大夫始以郡望自矜. |
| 辭海 ⁹⁾ | 魏晉至隋唐時每郡顯貴的世族 稱“郡望”, 意即世居某郡爲當地所仰望 如清河崔氏·太原王氏等. | (典據 없음) |
| 辭源 ¹⁰⁾ | 郡中顯貴的姓氏. 如魏晉時清河的張姓·太原的王姓等. | (典據 없음) |

행정 단위를 의미하는 ‘郡’과 望族을 의미하는 ‘望’, 이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郡望이라는 용어는 ‘한 郡 단위 안의 望族’을 뜻한다고 이 辭典들은 보고 있다.

또, 이 辭典들에서 郡望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典據를 살펴보면, 明나라 시기 楊慎(1488~1559)이 저술한 『丹鉛總錄』, 그 『丹鉛總錄』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卷10에 수록되어 있는 ‘郡姓’篇, 또 淸나라 시기 錢大昕(1728~1804)이 저술한 『十駕齋養新錄』, 그 『十駕齋養新錄』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卷12에 수록되어 있는 ‘郡望’篇, 그리고 근대 시기 소설가인 魯迅(1881~1936)의 작품집인 『吶喊』에 실려 있는 『阿Q正傳』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辭典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의 典據들이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郡望이라는 용어의 의미 즉 ‘한 郡 단위 안의 望族’이라는 뜻과 얼마나 부합하는 것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5)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郡望’條, (株式會社)大修館書店, 1986.
- 6)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文大辭典』 ‘郡望’條,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3.
- 7)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 『漢語大詞典』 ‘郡望’條, 漢語大詞典出版社, 1992.
- 8)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郡望’條, 檀國大學校出版部, 2008.
- 9) 辭海編輯委員會 編, 『辭海』 ‘郡望’條, 上海世紀出版股份有限公司, 2010.
- 10) 商務印書館編輯部 編, 『辭源』 ‘郡望’條, 商務印書館, 1979.

楊慎(1488~1559)은 그의 저서 『丹鉛總錄』에서 南北朝 시기에 漢族 출신으로 北朝에 참여하였던 門閥 士族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이기도 한 ‘郡姓’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姓氏書 以姓配郡望 甚爲無謂 虛高族望 起于江南 侯景求婚於王謝而不允 遂詬曰 會須以吳兒女配奴 江東散亂 職此之由 其後 河北亦效 尤以崔盧爲首 比江東之王謝 薛宗起不得入郡姓 至碎載 爭於帝前 乃取入郡姓 今之百氏郡望 起於元魏胡虜之事 何爲據也 是時 韓顯宗上疏有云 門望者 乃其父祖之遺烈 亦何益於皇家 苟有才 雖屠釣可相 奴虜可將 苟非其才 雖三后之胤 墜於皂隸矣 又曰 陛下豈可以貴襲貴賤襲賤 李沖(-『魏書』에 따르면 李沖이 아니라 李彪이다. : 安註)曰 不審魯之三卿 孰若四科 眞名言哉¹¹⁾

“(지금 남아 있는) 姓氏書들을 살펴보면 姓氏와 함께 郡望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郡望이라는 것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 한다”(姓氏書 以姓配郡望 甚爲無謂)라고 시작되는 위 인용문에서 이 인용문의 저자인 楊慎이 ‘郡姓’이라는 용어와 ‘郡望’이라는 용어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가 이 두 역사적 용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인용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楊慎은 ‘郡望’이라는 용어가 魏晉南北朝 시대에 발달한, 그 중에서도 특히 代北인이 세운 왕조인 北魏 시대에 크게 발달한 郡姓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 北魏 시대의 郡姓은 비슷한 시기 南朝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門閥을 숭상하는 風潮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물론 北朝의 郡姓은 南朝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楊慎은 南朝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門閥을 숭상하는 風潮를 설명하기 위하여, 또 그 門閥을 숭상하는 風潮로 인해 생겨난 폐단을 드러내기 위하여, 侯景(503~552)의 故事를 예로 들고 있다. 侯景은 鮮卑族 출신으로, 北朝의 北魏와 南朝의 梁나라에서 활약하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젊은 시절 北魏의 군대에 들어가 胡族의 반란을 진압한 功으로 명성을 얻게 된 후, 이 명성을 기반으로 547년(梁武帝 太清 元年)에는 梁나라로 투항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548년에는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梁나라의 帝位를 찬탈하기도 하였다.

侯景은 梁나라에 투항한 이후로 梁나라에 형성되어 있는 門閥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鮮卑族 출신인 그에게, 더욱이 북방 지역에서 軍功 하나만으로 명성을 얻은 그에게 梁나라의 門閥 사회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그는 梁나라의 門閥 사회에서 많은 좌절을 맛보아야 했고, 이런 좌절이 계속되면서 梁나라 사회에 대한 그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楊慎은 侯景의 이러한 불만이 반란으로 이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婚姻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던 梁武帝와의 갈등에 있었다고 생각하였다.

侯景은 梁나라의 門閥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당시 梁나라 사회에서 최고의 門地(- 楊慎이 말하는 ‘門望’과 같은 의미이다.)를 자랑하던 王氏나 謝氏와 婚姻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당시 梁나라의 皇帝인 武帝에게 婚姻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王氏

11) 楊慎, 『丹鉛總錄』 卷10 人品類 ‘郡姓’篇.

와 謝氏는 門地가 너무 높아 너의 집안과 婚姻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하니 朱氏나 張氏 혹은 그 以下의 門地를 가진 가문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하다”였다. 이러한 대답을 目前에서 들은 侯景은 梁나라 사회에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장차 뭇 지방에 있는 望族의 딸들을 노예들에게 시집가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¹²⁾ 楊慎이 위 기사에서 말하는 “侯景求婚於王謝而不允 遂詬曰 會須以吳兒女配奴”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전제해 두고 한 말이다.

또, 楊慎은 南朝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였던 門閥 숭상 風潮가 이후 北朝 사회에서 郡姓이 생겨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郡姓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薛宗起(생몰년 미상)의 故事를 언급하고 있다. 薛宗起는 『北史』에 列傳이 실려 있기도 한 薛聰(생몰년 미상)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되며,¹³⁾ 주로 北魏 孝文帝 때 활동하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資治通鑑』에 따르면, 어느 날 孝文帝는 그의 신하들과 함께 각 지역의 郡姓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가 ‘薛氏가 河東 지역의 茂姓(-南北朝 시대에는 각 지역의 郡姓을 그 門地에 따라 甲族이니, 乙族이니, 丙族이니 하는 식으로 구분하였다. 薛宗起의 가문은 河東 지역의 茂族에 해당하였다. : 安註)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薛宗起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孝文帝는 薛宗起의 재치를 시험하기 위하여 “薛氏의 조상은 蜀 땅의 사람들인데, 어찌 郡姓에 포함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농담조의 질문을 던졌다. 이 소리를 들은 薛宗起는 자신이 들고 있던 창을 땅에 내던지며 앞으로 뛰쳐나와 말하기를 “저의 조상은(본래 河東 사람들로) 漢나라 말기에 蜀 땅에 들어갔다가 두 세대를 그곳에서 보내고 다시 河東 지역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6세대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상은 蜀人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생각해 보건대, 폐하께서는 黃帝의 후예(-孝文帝는 拓跋氏로, 拓跋氏는 黃帝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 安註)인데, 폐하의 조상이 북방 지역에 봉해졌다고 해서 또한 오랑캐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시대에 郡姓에 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비록 농담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는 하였지만 다소 당황스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孝文帝는 “그럼 朕이 甲族이 되고 卿이 乙族이 되면 되겠구나”, “그대의 이름은 ‘宗起’라기 보다는 가문을 일으킨다는 뜻의 ‘起宗’이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마무리 하였다.¹⁴⁾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고

12) 이러한 내용은 『南史』 卷80 列傳第70 賊臣 侯景傳에 잘 기록되어 있다. 楊慎 역시 이 ‘侯景傳’의 내용을 참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又(-侯景이 반란을 피하게 된 원인으로 東魏의 침공을 받은 梁武帝가 侯景을 東魏로 송환하겠다는 편지를 보낸 것 이외에도, 또라는 뜻인) 請娶於王謝 帝曰 王謝門高非偶 可於朱張以下訪之 景志曰 會將吳兒女以配奴.

13) 필자가 薛宗起와 薛聰을 동일한 인물로 보는 이유는 『資治通鑑』에 실려 있는 기사의 내용과 『北史』 薛聰傳에 실려 있는 기사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중 『北史』 卷36 列傳第24 薛聰傳에 실려 있는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資治通鑑』에 실려 있는 기사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각주의 내용을 참고).

帝曾與朝臣論海內姓地人物 戲謂聰曰 世人謂卿諸薛是蜀人 定是蜀人不 聰對曰 臣遠祖廣德 世仕漢朝 時人呼爲漢 臣九世祖永隨 劉備入蜀 時人呼爲蜀 臣今事陛下 是虜非蜀也 帝撫掌笑曰 卿幸可自明非蜀 何乃遂復苦朕 聰因投戟而出 帝曰 薛監醉耳 其見知如此(‘帝’는 孝文帝를, ‘薛監’은 薛宗起를 의미함).

14) 이상은 『資治通鑑』 卷140 齊紀6 ‘建武三年’條에 실려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자가 임의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힌다. 『資治通鑑』 卷140 齊紀6 ‘建武三年’條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衆議以薛氏爲河東茂族 帝曰 薛氏蜀也 豈可入郡姓 直閣薛宗起 執戟在殿下 出次對曰 臣之先人 漢末仕蜀 二世復歸河東 今六世相襲 非蜀人也 伏以 陛下黃帝之胤 受封北土 豈可亦謂之胡邪 今不預郡姓 何以生爲 乃碎戟於地 帝徐曰 然則朕甲卿乙乎 乃入郡姓 仍曰 卿非宗起 乃起宗也(“直閣”은 관직명이다).

나서 薛宗起의 가문은 계속해서 郡姓으로 남게 되었다고 楊慎은 생각하고 있다(위 기사에서 〈薛宗起不得入 郡姓 至碎載 爭於帝前 乃取入郡姓〉 참고).

그리고 楊慎이 郡姓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資治通鑑』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출현하는 ‘郡姓’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후대의 학자인 胡三省(1230~1302)이 註釋을 달아 설명하였는데, 그 註釋에서는 郡姓의 의미를 “郡姓은 郡의 大姓이자 著姓을 뜻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은 姓氏들이 가지고 있는 郡望은 대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郡姓者 郡之大姓著姓也. 今百氏郡望 蓋始於此〉라고 정의하였다.¹⁵⁾

이러한 胡三省의 註釋은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 예를 들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大漢和辭典』, 『中文大辭典』, 『漢語大詞典』, 『漢韓大辭典』 그리고 『辭源』 등에서 ‘郡姓’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典據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 漢字語 辭典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郡姓의 의미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郡望’이라는 용어가 그러했듯이, 일반적으로 ‘望族’을 의미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大漢和辭典』은 “一郡中之名家をいふ”로, 『中文大辭典』은 “謂郡之大姓著姓也”로, 『漢語大詞典』은 “一郡之大姓望族”로, 『漢韓大辭典』은 “한 郡의 명문 귀족”으로, 그리고 『辭源』은 “一郡之內의大姓望族”으로 郡姓을 정의하고 있다.

여하튼 이야기를 다시 楊慎으로 돌려 보자면, 楊慎은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이 ‘郡望’과 ‘郡姓’이라는 용어를 모두 ‘望族’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郡望’이라는 용어와 ‘郡姓’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郡望’이라는 용어는 北朝 시대에, 특히 代北人들이 세운 왕조인 北魏 시대에 발달한 郡姓에서 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郡姓이라는 것은 漢族의 입장에서 보자면 異民族이 중국을 통치하던 혼란한 시기에 생겨난 것으로, 그 郡姓에서 비롯된 郡望이라는 것이 明나라 시기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楊慎은 위 기사에서 “지금의 많은 姓氏들이 가지고 있는 郡望이라는 것은 북방 오랑캐가 지배하던 北魏 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今之百氏郡望 起於元魏(-北魏의 皇室은 본래 托跋氏라는 姓氏를 가지고 있었지만 孝文帝 때에 元氏로 改姓하였다. : 安註)胡虜之事 何爲據也〉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또, 楊慎이 北魏 시대에 생겨난 郡望이 자신이 살던 明나라 시기까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판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郡望이 생겨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郡姓 그 자체가 北魏 시기 土族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北魏 시기의 일부 土族들은 ‘郡姓’이라는 것은 오로지 門地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이 郡姓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되면 사회에 많은 폐단이 생겨나기 때문에 郡姓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風潮는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는데, 楊慎은 이러한 北魏 시대 土族의 대표적인 견해로 韓顯宗(?~499)과 李彪(생몰년 미상)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韓顯宗은 당시 北魏 조정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門地만을 따져 관리를 등용하다보니 才德을 갖춘 인재가

15) 胡三省의 註釋은 明나라 시대 嚴衍(생몰년 미상)이 편찬한 『資治通鑑補』에 실려 있다. 嚴衍, 『資治通鑑補』 卷140 齊紀6 ‘建武三年’條.

제대로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門地에만 의지하여 관리를 등용하기 보다는 秀才와 孝廉에 의거하여 才德을 갖춘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도록 孝文帝에게 上言하였는데, 그 上言의 내용 가운데 “門望(-앞서 이야기하였듯이 門地라고도 한다. : 安註)이라는 것은 조상이 물려 준 遺業일 뿐인데, (이것만을 근거로 하여 관리를 등용한다면) 皇室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才德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그의 신분이) 짐승을 도살하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히 宰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의 신분이) 비록 노예와 같다고 하더라도 가히 將帥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才德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비록 禹王이나 湯王 그리고 文王의 후예와 같이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는 스스로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門望者 乃其父祖之遺烈 亦何益於皇家 苟有才 雖屠釣可相 奴虜可將 苟非其才 雖三后之胤 墜於自隸矣)라고 하였다.¹⁶⁾

南北朝 시대에 들어서는 관리를 등용하면서 그가 속한 가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현상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北魏의 孝文帝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당시 士族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근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이에 孝文帝는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보길 원하였고, 여러 신하들이 한 자리에 모인 어느 날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요 근래 들어 그 사람이 고귀한 가문의 출신인지 아니면 비천한 가문의 출신인지를 따져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관행이 강화되고 있으며 또 그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관행으로 인해 결정된 지위가 사회적으로 거의 고정화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朕은 이러한 현상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논의해 봄이 좋을 듯하다”라고.

이 자리에는 李彪와 韓顯宗 등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질문을 받은 李彪는 “폐하께서는 오로지 門地만을 따지시려 하십니다. 그럼 魯나라의 三卿으로 알려진 季孫氏, 孟孫氏, 叔孫氏는 魯나라 諸侯의 아들로 門地가 높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이들 가운데 누가 孔子가 강조한 文·行·忠·信 四科를 이루었던 말입니까? 저는 그러한 사실을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不審魯之三卿 孰若四科〉라고 하였고, 또 韓顯宗은 “왜 폐하께서는 高貴한 출신인 자들은 계속해서 고귀하게 하려 하시고 卑賤한 이들은 계속해서 卑賤하게 하려 하십니까?”〈陛下豈可以貴襲貴賤襲賤〉라고 하였다. 楊慎은 이 두 사람 가운데 특히 李彪의 말을 “眞名言”이라 칭찬하며, 羈姓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¹⁷⁾

16) 魏收, 『魏書』卷60 列傳第48 ‘韓顯宗傳’, 『魏書』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顯宗又上言曰 進賢求才 百王之所先也 前代取士 必先正名 故有賢良方正之稱 今之州郡貢察 徒有秀孝之名 而無秀孝之實 而朝廷但檢其門望 不復彈坐 如此 則可令別貢門望 以敘士人 何假冒秀孝之名也 夫門望者 是其父祖之遺烈 亦何益於皇家 益於時者 賢才而已 苟有其才 雖屠釣奴虜之賤 聖皇不恥以爲臣 苟非其才 雖三后之胤 自墜於自隸矣 是以大才受大官 小才受小官 各得其所 以致雍熙 議者或云 今世等無奇才 不若取士於門 此亦失矣 豈可以世無周邵 便廢宰相而不置哉 但當校其有寸長銖重者 即先敘之 則賢才無遺矣(‘賢良’과 ‘方正’은 모두 인재를 선발하는 科目으로 賢良은 주로 才德을, 方正을 주로 正直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周邵’(?-230)는 三國 시대 吳나라의 武將으로 騎都尉라는 비교적 낮은 관직으로 軍隊를 통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貢察’은 ‘薦舉’를, ‘秀孝’는 ‘秀才’와 ‘孝廉’을, ‘彈坐’는 ‘彈劾’을, 雍熙는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寸長銖重’는 ‘아주 작은 차이까지도’를 의미한다).

17) 魏收, 『魏書』卷60 列傳第48 ‘韓顯宗傳’, 『魏書』에 나오는 내용 중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高祖曾詔諸官曰 自近代已來 高卑出身 恒有常分 朕意一以爲可 復以爲不可 宜相與量之…(중략)…李彪曰 師旅寡少 未足爲懷 意有所懷 不敢盡言於聖日 陛下若專以門地 不審魯之三卿 孰若四科…(중략)…顯宗曰 陛下 以物不可類 不應以貴承貴以賤襲賤.(‘高祖’는 孝文帝를 말한다. ‘三卿’과 ‘四科’에 관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여하튼, 이상에서 楊慎이 언급한 내용 가운데,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는 郡望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今之百氏郡望 起於元魏胡虜之事 何爲據也”라는 문구를 그 典據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典據로 제시하고 있는 “今之百氏郡望 起於元魏胡虜之事 何爲據也”라는 문구와 이 문구와 함께 楊慎이 언급하고 있는 “姓氏書 以姓配郡望 甚爲無謂”라는 또 다른 문구, 그리고 薛宗起의 故事에 나오는 ‘郡姓’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설명한 “郡姓者 郡之大姓著姓也 今百氏郡望 蓋始於此”라는 胡三省의 문구, 이 문구들에 나오는 ‘郡望’이라는 용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郡望이라는 용어는 분명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에서 언급하고 있는 ‘望族’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듯하며, 또 그 辭典들에서 ‘望族’과 연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인 ‘郡姓’과도 그 의미가 다른 듯하다.

Ⅲ. 典據에 대한 검토(2)

그럼 이번에는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 사이에서 ‘郡望’이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典據 즉 錢大昕(1728~1804)이 저술한 『十駕齋養新錄』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錢大昕은 淸나라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19세에 進士試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하다가 40세가 넘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 전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특히 訓詁學에 밝아서 『史記』와 『漢書』의 내용은 물론 『金史』와 『元史』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校勘하였다고 한다.¹⁸⁾

『十駕齋養新錄』은 이런 그의 학술 활동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뽑히는 것으로, 후대 학자들 사이에서는 顧炎武의 『日知錄』과 함께 흠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十駕齋養新錄』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엮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종류의 歷史書와 古典을 살펴보던 가운데 생겨난 의문점들을 그때그때 정리하여 엮어 놓은 것이기도 하다. 이런 『十駕齋養新錄』에는 다양한 주제를 소재로 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그 중 卷12에는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 사이에서 ‘郡望’이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주요한 典據로 제시하고 있는 ‘郡望’篇이 실려 있다. 그 ‘郡望’篇의 내용 가운데 그 漢字語 辭典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典據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自魏晉 以門第取士 單寒之家 屏棄不齒 而士大夫始以郡望自矜 唐宋重進士科 士皆投牒就試 無流品之分 而唐世猶尚氏族 奉勅第其甲乙 勒爲成書 五季之亂 譜牒散失 至宋而私譜盛行 朝廷不復過而問焉 士既貴顯 多寄居它鄉 不知有郡望者 蓋五六百年矣 唯民間嫁娶名帖 偶一用之 言王必琅琊 言李必隴西 言張必清河 言劉必彭城 言周必汝南 言顧必武陵 言朱必沛國 其所祖何人 遷徙何自 概置弗問 此習俗之甚可笑者也¹⁹⁾

18) 본고에서는 錢大昕의 생애에 관하여 주로 『淸史稿』(卷481 列傳268 儒林2)에 실려 있는 ‘錢大昕’傳과 『中國大百科全書(中國歷史 篇)』(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部 編, 1992)의 ‘錢大昕’條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19)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卷12 ‘郡望’篇.

魏晉 시대에 들어서는 그 사람이 소속된 가문의 門地(錢大昕이 말하는 ‘門第’)에 따라 그를 관리로 등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이 소속된 가문의 門地에 따라 그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려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그리하여 門地가 낮은 가문의 士族들은 사회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門地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철저하게 구분되는 시대에 門地가 높은 가문의 士族들을 중심으로 郡望을 쓰기 시작하였고, 또 그 郡望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自負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錢大昕이 말하는 “自魏晉 以門第取士 單寒之家 屏棄不齒 而士大夫始以郡望自矜”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隋나라 시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관리 채용 방식인 科擧制度가 실시되었고, 그 科擧制度는 唐나라와 宋나라 시대에 들어 더욱 확대 실시되었다(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의 科擧制度는 宋나라 시대에 들어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科擧制度가 관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일반화되면서, 士族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譜牒’(이 시기 譜牒은 국가에서 작성하여 官吏를 등용할 때 참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에 근거하여 門地를 살펴보고 그 門地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논하려 하기 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중시하려는 風潮가 생겨났다. 하지만 唐나라 시대까지도 여전히 ‘譜牒’에 근거하여 門地를 논하고 또 그 門地를 따라 ‘甲族’이니 ‘乙族’이니 ‘丙族’이니 하는 따위로 가문(錢大昕이 말하는 ‘氏族’)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려는 風潮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郡望이라는 것 또한 그 사회적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唐나라 시대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唐나라 말기부터 시작된 사회적 혼란 그리고 그 후 계속해서 이어진 5대 10國 시기라는 대혼란을 경험하면서 門地를 따져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논하려는 風潮는 약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른바 ‘譜牒’이라는 것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더욱이, 宋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官에서 관리하던 ‘譜牒’을 대신하여 私家에서 임의로 만들어 낸 민지 못할 家系 記錄이 널리 유행하면서, 국가에서는 더 이상 門地를 철저히 따져서 관리를 등용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 또 士族들이란 관직에 나아가 한 번 顯達하고 나면 그 顯達한 관직과 관련된 지역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郡望이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즉 門地에 기반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科擧制度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를 등용하면서, 또 官에서 관리하던 이른바 ‘譜牒’이라는 것이 더 이상 작성되지 않고 가계 기록이 私家에서 함부로 작성되면서, 그리고 관직 생활을 위하여 郡望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士族들이 늘어나면서, 門地를 따져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논하려는 風潮는 약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郡望이라는 것도 또한 사회적으로 그 의미를 잃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淸나라 시기에 살았던 錢大昕은 “郡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 지가 이미 5백년 내지 6백년이 되었다”(不知有郡望者 蓋五六百年矣)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錢大昕이 살던 淸나라 시대에는 婚姻 文書를 작성하면서 王氏는 琅邪, 李氏는 隴西, 張氏는 淸河,

본고에서는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 1151冊, 上海古籍出版社, 1995에 수록된 『十駕齋養新錄』을 이용하였다.

劉氏는 彭城, 周氏는 汝南, 顧氏는 武陵, 그리고 朱氏는 沛國을 각기 그들의 姓氏 앞에 칭하는 풍습이 민간에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간에 유행하던 이 풍습은 오랜 세월 연구 끝에 중국 역사를 통찰할 수 있었던 錢大昕의 눈에는 魏晉 시대 이후 생겨나 唐나라 시대까지 존재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郡望, 그 郡望의 유산으로 보였다.

하지만 민간에서 유행하던 이러한 풍습은 錢大昕의 눈에는 참으로 우습기 그지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郡望이라는 것은 동일한 姓氏 안에서 서로의 氏族(- 앞서 밝혔듯이 중국사학계에서는 ‘家族’ 또는 ‘宗族’이라는 말을 쓴다)을 구분하기 위하여 생겨난, 다시 말하면 같은 姓氏를 사용하더라도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조상이 본래 거주하던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氏族을 구분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으로, 하나의 姓氏가 하나의 郡望만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하였던 王氏니, 李氏니, 張氏니, 劉氏니, 周氏니, 顧氏니, 朱氏니 하는 많은 姓氏들이 하나의 郡望만을 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풍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錢大昕은 “이 풍습은 풍습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우습기 그지없는 것이다”〈此習俗之甚可笑者也〉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상에서 錢大昕이 밝히고 있는 ‘郡望’篇의 내용 가운데,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 郡望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典據로 제시하고 있는 문구는 “自魏晉 以門第取士 單寒之家 屏棄不齒 而士大夫始以郡望自矜”이다. 하지만 그 漢字語 辭典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望族’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典據로 제시하고 있는 “自魏晉 以門第取士 單寒之家 屏棄不齒 而士大夫始以郡望自矜”이라는 문구와, 또 같은 ‘郡望’篇에 나오는 “士既貴顯 多寄居它鄉 不知有郡望者 蓋五六百年矣”라는 또 다른 문구를 이해하기에는 왠지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錢大昕이 ‘郡望’篇을 저술하면서 염두에 두었던 ‘郡望’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郡望’篇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錢大昕은 ‘郡望’篇에서 郡望에 대한 설명을 “此習俗之甚可笑者也”라고 1차로 마무리한 다음, 바로 그 뒤를 이어 “此習俗之甚可笑者也”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란 淸나라 시기에 吳中 지역(- 지금의 江蘇省 일대로, 여기에서는 역사적으로 吳郡, 吳興郡, 會稽郡으로 불리었던 지역을 말하는 듯하다)의 대표적인 姓氏로 世間에서 “吳中四姓”이라 불리었던 姓氏, 즉 朱氏, 張氏, 顧氏, 그리고 陸氏의 경우이다.

錢大昕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朱氏라는 姓氏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沛國, 義陽, 吳郡, 그리고 河南 4개의 郡望을 칭하였는데, 당시 吳郡 지역에 거주하던 朱氏들은 오로지 沛國만을 郡望으로 칭하고 있었다.²⁰⁾ 역사

20) 일반적으로 중국 郡望에 관한 연구에서는 唐나라 시대 林寶(생몰년 미상)가 편찬하였다고 전해지는 『元和姓纂』, 宋나라 시대 鄧名世(생몰년 미상)가 편찬한 『古今姓氏書辯證』, 그리고 『新唐書』에 수록되어 있는 『宰相世系表』를 이용하고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元和姓纂』에는 錢大昕이 말한 沛國(- 『元和姓纂』에는 沛國相縣으로 기록되어 있다), 義陽, 吳郡, 河南 4개의 郡望 이외에도 錢塘, 永城, 譙郡, 丹陽, 大康 4개의 郡望이 더 수록되어 있으며, 『新唐書』의 『宰相世系表』에는 沛國(- 『宰相世系表』에는 沛國相縣으로 기록되어 있다)과 丹陽 2개의 郡望이 언급되고 있고, 『古今姓氏書辯證』에는 朱氏에 관한 기록이 나오질 않는다.

참고로, 필자는 『四庫全書』(臺灣商務印書館 編, 『文淵閣四庫全書』 第890冊)에 수록되어 있는 『元和姓纂』을 이용하였는데, 이 『元和姓纂』은 『永樂大典』에 실려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唐韻』과 『古今姓氏書辯證』과 같은 姓氏書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 沛國朱氏의 顯祖로는 漢나라 시대 때 大司馬와 大司空을 역임하고 新息侯로 봉해지기도 하였던, 그리하여 그의 列傳이 『後漢書』에 실리고 그 列傳에서 그를 “沛國蕭人”이라 칭하였던 朱浮(B.C. 6~66 추정)였다. 하지만 淸나라 시대 吳中 지역의 朱氏들은 그 朱浮를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婚姻 文書를 작성할 때가 되면 으레 沛國朱氏라 칭하고 있다는 것이 錢大昕의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吳郡, 吳興郡, 會稽郡 지역에 살고 있는 朱氏들은 당연히 吳郡을 郡望으로 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朱熹(1130~1200)를 조상으로 받들고 있는 朱氏들의 경우에는 朱熹가 스스로를 新安朱氏(-『宋史』 ‘朱熹’傳에는 朱熹를 “徽州婺源人”이라 칭하고 있는데, 新安은 徽州 지역을 지칭하는 古地名이다)라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新安朱氏라 칭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²¹⁾

이를 이어서 錢大昕은 吳中 지역에 거주하는 張氏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張氏를 칭하였던 사람들은 淸河, 南陽, 吳郡, 安定, 燉煌, 武威, 范陽, 犍爲, 沛國, 梁國, 中山, 汲郡, 河內, 高平 14개 郡望을 사용하였다.²²⁾ 그러나 당시 吳中 지역의 張氏들은 오로지 淸河만을 郡望으로 칭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 역시 郡望이라는 것은 그들이 받들고 있는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조상이 거주하던 지역이 어디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 믿고 있던 錢大昕에게는 의아해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吳中 지역의 張氏들 가운데 三國 시대 吳나라에서 大鴻臚를 역임한 張儼(?~266)의 아들로 주로 西晉 시대에 활동한 張翰(생몰년 미상, 字 季鷹)과 漢나라 시대의 인물인 張良의 9세손으로 그의 祖父인 張茂度(376~442)가 會稽太守를 역임하여 그 인연으로 吳郡 지역에 살았던 張緒(생몰년 미상, 字 思曼), 이 두 사람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 郡望을 吳郡으로, 그의 曾祖인 張字가 范陽 方城에 정착한 이후 范陽 지역을 근거로 西晉 시대에 활동하였던 張華(232~300, 字 茂先)와 이 張華의 13세손이자 唐나라 시기의 인물로 그 자신은 비록 洛陽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郡望만은 계속해서 范陽이라 칭하였던 張說(667~730, 字 道濟), 이 두 사람의 후손이라 칭하는 사람들은 그 郡望을 范陽으로, 또 西晉 시대에 涼州刺史에 임명되었다가 이후 西平公에 봉해지고 또 역사상 ‘前涼’이라 불리는 왕조를 세우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던 張軌(255~314)를 조상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郡望을 安定으로, 그리고 東漢 시기에 文名을 크게 날리었던 張衡(78~139, 字 平子)의 후손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 郡望을 南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²³⁾

『四庫全書』 편찬 당시에 재편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朱浮의 관직에 관해서는 『新唐書』의 「宰相世系表」를 참고하였다.

21)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卷12 ‘郡望’篇.

“朱張顧陸 號吳中四姓”으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朱氏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朱有沛國義陽吳郡河南四望 而今人但稱沛國 沛之顯者在漢爲朱浮 今朱氏 不皆祖浮也 予謂 三吳之朱 當稱吳郡 若徽文公之後 則依文公 自稱新安 可也(“予”는 錢大昕을, “三吳”는 吳郡, 吳興郡, 會稽郡 3개의 지역을, “徽文公”은 朱熹를 말한다.)

그리고 朱浮의 列傳은 『後漢書』 卷33 列傳第23에, 그리고 朱熹의 列傳은 『宋史』 卷429 列傳第188에 실려 있다.

22) 『元和姓纂』에는 張氏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古今姓氏書辯證』에서는 唐나라 시대 『元和姓纂』의 내용을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張氏의 郡望이 43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古今姓氏書辯證』 卷13 ‘張氏’篇 참고). 또, 『新唐書』의 「宰相世系表」에는 范陽, 河東, 始興, 馮翊, 吳郡, 淸河東武城, 河間, 中山, 魏郡, 汲郡, 그리고 鄭州 11개의 郡望이 기록되어 있다.

23)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卷12 ‘郡望’篇.

“朱張顧陸 號吳中四姓”으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張氏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張有淸河南陽吳郡安定燉煌武威范陽犍爲沛國梁國中山汲郡河內高平十四望 而今人但稱淸河 予謂 張之顯者 多矣 當視其所祖何人 如季鷹思曼之裔 則當云吳郡 茂先道濟之裔 當云范陽 西平公軌之後 當云安定 平子之裔 當云南陽 不應概稱淸河也(“予”는 錢大昕을, “季鷹”과 “思曼”은 張翰과 張緒를, “茂先”과 “道濟”는 張華와 張說을, “平子”는 張衡을 말한다. 각 인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처럼 錢大昕이 吳中 지역의 張氏들을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조상에 따라 그들의 郡望을 吳郡이니, 范陽이니, 安定이니, 그리고 南陽이니 하는 따위로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吳郡 지역의 張氏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조상, 그 조상들의 本籍地(張說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郡望)를 역사 문헌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해 보자면, 張翰과 張緒의 경우에는 각기 『晉書』와 『南齊書』에 실려 있는 그들의 列傳에서 그들을 “吳郡吳人”이라 또 張華의 경우에는 『晉書』에 실려 있는 그의 列傳에서 그를 “范陽方城人”이라 칭하고 있고, 張說의 경우에는 『舊唐書』에 실려 있는 그의 列傳에서 그를 “其先范陽人 代居河東 近又徙家河南之洛陽”이라 소개하고 있으며, 그리고 張軌와 張衡의 경우에는 각기 『晉書』와 『後漢書』에 실려 있는 그들의 列傳에서 그들을 “安定烏氏人”과 “南陽西鄂人”이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²⁴⁾

또, 錢大昕은 “『廣韻』에서 말하기를 ‘顧라는 姓氏는 吳郡에서 생겨났다’라고 한다. (그리고 顧라는 姓氏 가운데 吳郡 이외) 다른 郡望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들어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吳中 지역의 顧氏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²⁵⁾ 그에 따르면, 吳郡 지역의 顧氏들은 三國 시대 吳나라에서 丞相을 역임하였던 顧雍(168~243)과 그의 손자로 西晉 시기에 司空을 역임하였던 顧榮(?~312)을 조상으로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면 南北朝 시기 梁나라에서 활동한 顧野王(519~581)이나 唐나라 시기에 활동하였던 顧況(727~815 추정)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사실, 이들은 각기 『三國志』, 『晉書』, 『南史』, 그리고 『舊唐書』에 “吳郡吳人” 또는 “吳國吳人”(= 顧榮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蘇州人”(= 顧況이 이에 해당한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吳中 지역의 顧氏들은 자신들의 郡望을 武陵이라 그릇되게 칭하고 있었다.²⁶⁾

또, 吳中 지역에 살고 있는 陸氏 역시 郡望을 그릇되게 칭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錢大昕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陸氏라는 姓氏를 소유한 사람들은 吳郡과 河南을 그들의 郡望으로 칭하였는데, 淸나라 시대에 吳郡 지역에 살고 있는 陸氏들은 모두 河南만을 그들의 郡望으로 칭하고 있었다.²⁷⁾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찰해 봤을 때, 河南을 郡望으로 하는 陸氏들은 본래 북방의 鮮卑族 출신으로 北魏 시기 孝文帝 때 그들의 본래 姓氏인 步陸孤라는 姓氏를 버리고 陸氏로 改姓하였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錢大昕에게는,

본문을 참고).

- 24) 張翰의 列傳은 『晉書』 卷92 列傳第62에, 張緒의 列傳은 『南齊書』 卷33 列傳第14에, 張華의 列傳은 『晉書』 卷36 列傳第6에, 張說의 列傳은 『舊唐書』 卷97 列傳第47에, 張軌의 列傳은 『晉書』 卷86 列傳第56에, 그리고 張衡의 列傳은 『後漢書』 卷59 列傳第49에 실려 있다.
- 25) 『元和姓纂』에는 顧氏의 郡望에 관한 기록이 없고, 『古今姓氏書辯證』에는 吳郡顧氏에 관한 기록만 실려 있다. 그리고 『古今姓氏書辯證』과 『新唐書』의 「宰相世系表」에서는 모두 顧氏는 본래 會稽 지역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 26)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卷12 ‘郡望’篇.
“朱張顧陸 號吳中四姓”으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顧氏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廣韻 顧姓出吳郡 不聞有它望 今顧氏所祖 不曰雍曰榮 則曰野王曰況 皆吳人也 而改稱武陵 謬矣
顧雍의 列傳은 『三國志』 卷52 吳書7에, 顧榮의 列傳은 『晉書』 卷68 列傳第38에, 顧野王의 列傳은 『南史』 卷69 列傳第59에, 그리고 顧況의 列傳은 『舊唐書』 卷130 列傳第80에 실려 있다. 『廣韻』에 관련된 내용은 宋나라 시기 陳彭年(961~1017)이 편찬한 『重修廣韻』의 卷4에 나온다.
- 27) 『元和姓纂』에는 錢大昕이 말한 吳郡과 河南 이외에도 嘉興이 陸氏의 郡望으로 기록되어 있고, 『古今姓氏書辯證』에는 吳郡과 河南이, 그리고 『新唐書』의 「宰相世系表」에는 吳郡만 기록되어 있다. 또, 『古今姓氏書辯證』과 『新唐書』의 「宰相世系表」에서는 吳郡陸氏 안에 潁川枝, 荊州枝, 丹徒枝, 樂安枝, 魚圻枝, 諫議枝, 侍郎枝, 太尉枝(-『古今姓氏書辯證』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7개 支派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吳中 지역의 陸氏들이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陸績(생몰년 미상), 陸績(생몰년 미상), 陸遜(183~245), 그리고 陸抗(226~274)이라는 인물들이 역사 문헌 속에 있는 그들의 列傳에서 “吳郡吳人” 또는 “會稽吳人”이라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錢大昕에게는, 吳中 지역의 陸氏들이 婚姻 文書를 작성하며 그들을 河南陸氏라 칭하고 있는 풍습이 마냥 우습기만 한 것이었다.²⁸⁾

이처럼 淸나라 시기 吳郡 지역에 살고 있는 유력한 4개의 姓氏가 그들의 조상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한 郡望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사실 중국의 氏族制度(- 중국사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宗族制度라 부르고 있다)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하는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唐나라 말기에 이르러서는 중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를 들면 錢大昕이 말한 바 科擧制度가 실시되고, 사사로이 작성한 가계 기록이 유행하며, 또 士族들의 이동이 빈번해 지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변화는 錢大昕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당시 중국 사회의 근간을 흔든 변화’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의 氏族制度 또한 그 성격이 많이 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 宋나라 시기 이후로는 중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郡望을 칭하지 않게 되었다.²⁹⁾ 그리고 錢大昕이 살았던 淸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郡望이라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되었고, 설령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들 婚姻 文書를 작성할 때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것과 같이 아주 사사로운 민간의 풍습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들의 칭하고 있는 郡望이라는 것 또한, 錢大昕이 밝히고 있듯이,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習俗之甚可笑者”일 뿐이었다.

그리고 淸나라 사회의 氏族制度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동일한 시기 한국의 조선 시대에 존재하였던 氏族制度和 비교했을 때, 다시 말해 本貫이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절대 불변의 것이요 그리하여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아니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선 시대의 氏族制度和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³⁰⁾

28) 錢大昕, 『十駕齋養新錄』卷12 ‘郡望’篇.

“朱張顧陸 號吳中四姓”으로 시작되는 문장에서 陸氏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陸有吳郡河南二望 河南之陸 出自鮮卑 本步陸孤氏 魏孝文時 改爲陸氏 今陸氏皆宗續續遜抗 則爲吳郡之陸 審矣 而轉有取于代北之陸 何哉(“續”은 陸績을, “續”은 陸績을, “遜”은 陸遜을, “抗”은 陸抗을, “代北”은 北魏 정권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代北人들을 말한다.)

29) 중국 氏族制度가 唐나라 말기부터 시작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常建華가 그의 연구에서 잘 정리해 두었다. 常建華는 邱漢生, 李文治, 徐揚杰, 王思治, 王善軍, 그리고 馮爾康 등 중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그 연구 성과들이 “宋나라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宗族과 또 그 宗族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사회에서는 ‘身份性’이 존재하였고, 또 그 ‘身份性’을 바탕으로 생겨난 사회 계층인 世家大族들이 그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 하지만 宋나라 이후의 사회에서는 그 ‘身份性’이 사라지게 되었고, 비록 낮은 관직을 소유한 官僚나 일반 민중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宗族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內藤湖南, 谷川道雄, 井上徹 등 일본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들 역시 宋나라 시기 이후 생겨난 宗族의 성격에 관해서는 중국 학자들과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常建華, 『宋明以來宗族制形成理論辨析』, 『宋以后宗族的形成及地域比較』, 人民出版社, 2013, 20~21쪽을 참고 하길 바란다. 이 연구는 2007년 『安徽史學』에 게재되었으며, 이듬해 원정식이 번역하여 『강원사학』 22·23합집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30)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는 安光鎬의 또 다른 연구, 「전통기 韓·中 地方志에 나오는 本貫 기록 비교 - 江西省 吉安府 『吉安府

그럼 이쯤에서 다시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면, 그 漢字語 辭典 등에서 ‘郡望’이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典據로 제시하고 있는 “自魏晉 以門第取士 單寒之家 屏棄不齒 而士大夫始以郡望自矜”이라는 문구, 그리고 이 문구와 함께 錢大昕의 ‘郡望’篇에 나오는 “士既貴顯 多寄居它鄉 不知有郡望者 蓋五六百年矣”라는 문구, 이 두 문구에 나타나는 ‘郡望’이라는 용어는 그 漢字語 辭典 등에서 ‘郡望’이라는 용어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 ‘望族’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겠지만, 그 문구들에 나오는 ‘郡望’이라는 용어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楊慎의 ‘郡姓’篇에 나오는 ‘郡望’이라는 용어와 胡三省의 註釋에 나오는 ‘郡望’이라는 용어까지도, 아주 먼 옛날 각 氏族들의 조상이 그들의 本據地라 여기었던 지역 즉, 이를 후손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해 보자면 ‘遠祖의 本籍地’가 되는 지역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錢大昕이 언급하였던 “吳中四姓”을 예로 하여 살펴보면, 『後漢書』 ‘朱浮傳’에 나오는 “沛國蕭人”의 沛國, 朱熹가 스스로를 칭하면서 말하였던 “新安朱氏”의 新安, 『晉書』 ‘張翰傳’과 『南齊書』 ‘張緒傳’에 나오는 “吳郡吳人”의 吳郡, 『晉書』 ‘張華傳’과 『舊唐書』 ‘張說傳’에 각기 나오는 “范陽方城人”과 “其先范陽人”의 范陽, 『晉書』 ‘張軌傳’에 나오는 “安定烏氏人”의 安定, 『後漢書』 ‘張衡傳’에 나오는 “南陽西鄂人”의 南陽, 그리고 『三國志』 ‘顧雍傳’·『晉書』 ‘顧榮傳’·『南史』 ‘顧野王傳’·『舊唐書』 ‘顧況傳’·『三國志』 ‘陸績傳’과 ‘陸遜傳’·『後漢書』 ‘陸績傳’에 나오는 “吳郡吳人”(← 물론 顧榮의 경우에는 “吳國吳人”이라, 顧況의 경우에는 “蘇州人”이라, 그리고 陸績의 경우에는 “會稽吳人”이라 기록되어 있다)의 吳郡이 郡望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郡望’이라는 용어가 ‘遠祖의 本籍地’를 뜻하는 것이었기에, 錢大昕은 그가 저술한 ‘郡望’篇의 말미에서 “吳郡 지역의 陸氏들 가운데에는 河南을 (郡望으로) 칭하지 않고 平原을 (郡望으로) 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陸機(261~303, 字 士衡)가 平原內史를 역임한 연유로 그 地名을 따라 郡望을 칭하고 있다면, (그 조상이) 관직을 역임한 지역의 地名으로 郡望을 칭하는 사례는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³¹⁾

IV. 郡望의 의미에 대한 검토

사실, 郡望이라는 용어가 해당 氏族 구성원들의 ‘遠祖의 本籍地’를 뜻하는 사례는 현대 시기에 들어 이루어

志』와 全羅道 南原府 『龍城續誌』를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8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전통기 韓·中 姓氏制度를 바라보는 두 知識人의 시각 - 宋나라 시대 鄭樵와 朝鮮 시대 柳馨遠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113, 한국사학회, 2014; 「中國의 郡望制度和 韓國의 本貫制度 비교 - 中國의 清河崔氏와 韓國의 南陽洪氏를 중심으로 », 『역사와 경계』 98, 부산경남사학회, 2016; 「清나라 시기 方東樹(1772~1851)의 시각을 통해 본 중국 郡望制度的 한 성격」, 『明清史研究』 47, 2017을 참고하길 바란다.

31) 錢大昕, 『十駕齋養新錄』 卷12 ‘郡望’篇.

間有不稱河南而稱平原者 未審其故 若以士衡爲平原內史而稱之 則吾未聞以所歷之官爲郡望者也

『晉書』 ‘陸機傳’과 ‘成都王穎傳’의 내용으로 볼 때 陸機는 302~303년 사이에 平原內史를 역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晉書』 ‘陸機傳’에서는 陸機를 “吳郡人”이라 소개하고 있다.

진 역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岑仲勉의 연구이다. 그의 연구는 唐나라 역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淸나라 말기에 활동하였던 勞格(1819~1864)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이러한 영향으로 『元和姓纂四校記』, 『隋唐史』, 그리고 『唐史餘藩』과 같은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그는 『唐史餘藩』에서 중국 역사상 郡望이 출현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³²⁾

(夏·商·周 三代 시대에는 ‘姓’과 ‘氏’가 각기 별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西漢 시대에 들어서는 ‘姓’이 사라지고 ‘氏’만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바로 郡望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郡望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王室의 후손을 뜻하는 公孫, 그 公孫을 칭하는 사람들이 諸侯國 사이에서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殷나라 王室과 周나라 王室에서 떨어져 나와 그들이 살고 있는 郡 단위의 地名을 칭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소속된 氏族의 所從出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역사상 郡望이 처음으로 생겨났던 시대로 말해보자면, 郡望과 籍貫(- 중국인들은 本籍地를 籍貫이라 부른다: 安註)은 하나의 의미를 지닌 것이요 별도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었다....(중략)...(하지만 동일한 姓氏, 동일한 郡望을 칭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각기 처해진 상황에 따라 四方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로써 郡望과 籍貫이 점점 별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스로 郡望을 칭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소속된 氏族의 所從出을 (계속해서) 밝히기 위함이었다.³³⁾

또, 우리는 현재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郡望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日本 학자인 牧野巽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牧野巽은 중국의 氏族制度에 관한 연구에 있어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는 그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한 歷史事典, 그 歷史事典의 ‘家族’條에서 郡望의 성격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이 ‘家族’條에서 ‘중국 古代의 경제는 前漢 武帝 때부터 정체되기 시작하여 점차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쇠퇴하여 갔으며,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각 지방에서는 豪族들이 생겨났고, 또 그 豪族을 중심으로 累世共居하는 大家族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 역사에서 中世는 後漢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中世로서 확실해진 시기는 三國 시기부터 였다’라고 말을 한 뒤, 三國 시기 이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三國 시기 무렵부터는) 官吏의 임용에도 門地를 숭상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각 지방에는 각각 有名 氏族이 존재하였으며, 그들은 다른 지방에 移住하여도 (자기들의 出身地를 밝힘에 있어) 原住地名을 郡望이라 하여 사용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같은 姓을 가진 他族과 구분하였던 것이

32) 본고에서는 岑仲勉의 생애에 관하여 주로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部 編, 『中國大百科全書(中國歷史 篇)』 ‘岑仲勉’條, 1992.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33) 岑仲勉, 『唐史餘藩(外1種)』, 中華書局, 2004, 229쪽. 원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自西漢廢姓存氏 於是郡望代起 良以公孫之稱 徧於列國 王子之後 分自殷周 稱其本郡 所以明厥氏所從出也 故就最初言之 郡望籍貫是一非二...(중략)...遂不能不各隨其便 散之四方 而望與貫漸分 然人仍多自稱其望者 亦以明厥氏所從出也.

다. (따라서) 이 시대로부터 隋唐代에 걸쳐서는...(중략)...이른바 貫籍은 出生地도 아니요 居住地도 아닌 경우가 많았다.³⁴⁾

또,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하였듯이, David G. Johnson은 중국 역사상 魏晉南北朝 시대부터 唐나라 시대까지 형성되어 있었던 門閥 사회를 古代 그리스의 ‘寡頭政治’(Oligarchy)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그 역시 그의 연구에서 郡望이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중국 中世 시기 氏族에 관련된 용어들이 역사 문헌 속에서 다소 애매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 ‘宗’과 ‘族’ 그리고 ‘姓’과 ‘家’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한 뒤, 그 뒤를 이어 ‘望’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望’의 구체적인 용례로 ‘本望’과 ‘郡望’을 언급하였는데, 이 중 ‘郡望’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本望 이외에 역사 문헌에서) 자주 나타나는 용어로 郡望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郡望이라는 용어는 본래 “한 郡 단위 안에 있는 望族”을 뜻하였지만, 이후 唐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望族들이 그들 조상의 本籍地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던 郡의 명칭”을 지칭하게 되었다...(중략)...즉, 한 지역을 매개로 형성된 郡望이 (이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상징적인 의미 즉 氏族을 분별하는 符號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郡望은 반드시 그가 살고 있는 또는 그의 戶籍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었고, 또 그가 태어난 곳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氏族이 어디인지를 밝혀주는 구실을 하게 되었다.³⁵⁾

이상에서 살펴 본 세 역사학자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岑仲勉은 西漢 시기 이후 각 氏族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郡 단위의 地名을 칭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역사상 郡望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물론 岑仲勉도 ‘郡望과 籍貫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시기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무튼,) 牧野巽은 三國 시기 이후 각 지방에서 생겨난 有名 氏族들이 그들의 本據地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도 계속해서 그들의 本據地名(- 原住地名)를 칭한 것에서 郡望이 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역사학자는 중국 역

34) 平凡社 編, 『アジア歴史事典』 第2卷, 平凡社, 1970, 181b쪽. 원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官吏の任用にも, 門地を重視することがはっきりした. 各地方には, それぞれ名族が存在し, 他の地方に移住しても, 原住地を郡望として, 同姓の他族と區別した. この時代から, 隋唐にかけては...(중략)...いわゆる貫籍は生地でも, 住地でもない場合が多い.

이 번역은 宋俊浩의 번역을 많이 참고하였다. 宋俊浩의 번역에 관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참고.

35) David G. Johnson, *The Medieval Chinese Oligarchy*, Westview Press, 1977, pp.92-93. 원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Chün-wang*, a term frequently met, originally meant “the elite families of the prefecture”, but by Tang times gradually came to mean “the prefecture in which an elite family has its ancestral home”....(중략)...geographical ties shifted from actual to symbolic significance. A man’s *Chün-wang* therefore was not necessarily his place of residence or registry, nor the place where he was born. It was instead his claim to membership in a certain descent group.

David G. Johnson이 말하는 ‘中世(Medieval) 시기’란 漢나라 말기부터 唐나라 말기까지를 이른다. 또, 필자는 David G. Johnson이 말하는 ‘Descent Group’을 ‘氏族’으로 번역하였다. 하지만 현재 中國史學界에서는 이를 두고 ‘大家族’ 또는 ‘世家大族’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상 郡望이 출현한 시기와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 郡望이라는 용어가 본래부터 郡 단위의 地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또 David G. Johnson 역시 중국의 역사 문헌에 나타나는 郡望이라는 용어가 郡 단위의 地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 두 역사학자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郡望이라는 용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그들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郡望이라는 용어는 본래 한 郡 단위 안에 있는 名望 있는 氏族 즉 望族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후대(- 그는 구체적으로 唐나라 시기로 밝히고 있다)에 이르러서는 그 郡望이라는 용어가 望族의 遠祖가 살았던 지역을 의미하는 그리하여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 氏族을 분별하기 위한 符號로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하튼, David G. Johnson은, 위 두 역사학자 즉 岑仲勉이나 牧野巽과는 달리, 郡望이라는 용어가 본래는 '名望 있는 氏族' 즉 '望族'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어떠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말을 하였는지는 현재 필자로서는 명확히 알 수가 없으나, 단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아마도 그가 우리가 앞에서 면밀히 분석해 보았던 漢字語 辭典들에 실려 있는 郡望의 의미를 보고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³⁶⁾

그리고 한국의 宋俊浩 역시, David G. Johnson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의 내용에 따라 郡望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의 本貫制度가 중국의 郡望制度(- 宋俊浩를 이를 두고 '中國의 本貫制'라 칭하고 있다)와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밝히고 한국의 本貫制度和 중국의 郡望制度 모두 門閥을 숭상하는 사회 風潮에서 생겨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牧野巽의 설명을 소개하고 있다.

(中國에 있어서 三國時代의 무렵부터는) 官吏의 임용에도 門地를 숭상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각 지방에는 각각 有名 氏族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을 郡望이라 하였는데) 그들은 다른 지방에 移住하여도 (자기들의 出身地를 밝힘에 있어) 原地地名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望族으로서의 자기들의 배경을 밝히고 또 같은 姓을 가진 他族과 구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로부터 隋唐代에 걸쳐서는……이른바 貫籍은 出生地도 아니요 居住地도 아닌 경우가 많았다.³⁷⁾

36) David G. Johnson은 그의 저서에서 "郡望이라는 용어는 본래 '한 郡 단위 안에 있는 望族'을 뜻하였지만, 이후 唐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점차 '望族들이 그들 조상의 本籍地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던 郡의 명칭'을 지칭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문구의 註釋에서 그가 「唐代의 郡望表(下) - 九・十世紀의 敦煌寫本を中心として -」, 『東洋學報』 42: 4, 1960; 岑仲勉, 『隋唐史』, 北京, 1957, 120쪽; 상동, 『唐史餘藩』, 北京, 1960, 229~233쪽; 章群, 「論唐開元前的政治集團」, 『新亞學報』, 1956, 282~283쪽. 그리고 竹田龍兒의 연구를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 필자의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池田溫, 岑仲勉, 그리고 章群의 연구를 살펴보면, 郡望이라는 용어가 본래 望族을 의미하였다는 내용이나 郡望의 의미가 변화한 시기를 唐나라로 보는 견해는 나오지 않고 있다.

참고로, 필자는 1982년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隋唐史』上冊 121~126쪽, 2004년에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唐史餘藩』外一種, 229~233쪽, 그리고 1992년 臺灣 中國唐代學會에서 간행한 『(中華叢書)唐代研究論集』 1에 실려 있는 「論唐開元前的政治集團」, 747~748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宋俊浩가 번역한 이상의 번역문을 앞에서 살펴본 牧野巽의 설명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宋俊浩가 “각 지방에는 각각 有名 氏族이 존재하였으며, 그들은 다른 지방에 移住하여도 (자기들의 出身地를 밝힘에 있어) 原住地名을 郡望이라 하여 사용하였다”라고 번역해야 할 대목을, “각 지방에는 각각 有名 氏族이 존재하였으며 (이들을 郡望이라 하였는데) 그들은 다른 지방에 移住하여도 (자기들의 出身地를 밝힘에 있어) 原住地名을 그대로 사용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소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고 또 외국어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번역할 때에는 그 무엇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강조한 그이기에 이와 같은 그의 번역이 단순한 誤譯이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아마도 그가 이처럼 번역하였던 이유는 그가 이와 같이 번역함으로써 ‘三國 시기에 이미 原住地名을 郡望이라 칭하였다’는 牧野巽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가 牧野巽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으로서는 그 또한, David G. Johnson이 그러했던 것처럼,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의 내용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물론 宋俊浩 역시 그의 저서에서 郡望이 ‘遠祖의 本籍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宋俊浩가 魏晉 시기부터 唐나라 시기까지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서 존재하였던 郡望制度를 ‘郡望制度’라 칭하지 못하고 한국의 本貫制度에 빗대어 ‘中國의 本貫制’라 그의 저서에서 칭하고 있는 사실 또한 저 漢字語 辭典들의 내용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여하튼, 위 네 명의 역사학자들은 郡望이 해당 氏族 구성원들의 ‘遠祖의 本籍地’를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David G. Johnson과 宋俊浩는 郡望이라는 용어가 후대에 이르러 해당 氏族 구성원들의 ‘遠祖의 本籍地’를 의미하게 되었지만, 그 용어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에는 ‘한 郡 단위 안의 望族’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이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郡望의 의미를 참고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 郡望이라는 용어를 ‘望族’과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현대인들이 근대 시기에 출판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찾아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阿Q正傳』이다(『阿Q正傳』에 나오는 郡望에 관해서는 앞서 밝힌 『漢語大詞典』의 내용을 참고하라). 『阿Q正傳』은 『吶喊』이라는 魯迅(1881~1936)의 작품집에 실려 있는 소설 가운데 하나인데, 이 소설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8장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머리말〈序〉”이다.

이 “머리말〈序〉”에서는 『阿Q正傳』의 話者인 ‘내(我)’가 이 소설의 주인공 阿Q에 관한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집필하려 하였으나 망설임 수밖에 없었던 네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 중 두 번째 이유가 阿Q의 姓氏가 趙氏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네 번째 이유가 그의 籍貫(←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한국의 本籍地를 말한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阿Q正傳』의 話者가 밝히고 있

37) 宋俊浩, 「韓國의 氏族制에 있어서의 本貫 및 始祖의 問題」, 『朝鮮社會史研究』, 一潮閣, 1987, 97쪽.

는 그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네 번째는 阿Q의 籍貫이다. 만일 그의 姓이 趙氏이기라도 하다면 오늘날 郡望을 칭하는 풍습에 따라 『郡名百家姓』의 注解에 나오는 “隴西天水人”이라도 칭해보겠지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가 가진 姓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의 籍貫 또한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³⁸⁾

여기서 魯迅이 말하는 郡望이란 『郡名百家姓』이라는 책에서 趙氏의 郡望으로 밝히고 있는 “隴西 天水”를 말한다.³⁹⁾ 실제로 중국의 역사 문헌 속에서 趙氏의 郡望을 찾아보아도, 『元和姓纂』에서는 “天水 西縣”이라고, 『古今姓氏書辯證』에서는 “隴西 天水”라고, 그리고 『新唐書』의 「宰相世系表」에서는 ‘秦나라 시기에 趙公 輔가 隴西 天水 西縣에 정착하였고 그 이후 자손들이 그곳에 세거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魯迅이 위 인용문에서 말하는 郡望은 “隴西 天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요 근래 편찬된 『阿Q正傳』의 주석서나 번역서에서는 위 인용문에 나오는 郡望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漢字語 辭典들과 같이 ‘望族’의 의미로 보고 있다. 1998년에 중국에서 간행된 한 주석서에서는 “郡은 지방 행정 구역을 의미하고 ‘望’은 ‘望族’을 줄여 말한 것이다. 따라서 郡望은 지방에서 추앙받은 姓氏를 말한다”(郡 地方之區劃也. 望 卽望族之簡稱, 言爲鄉黨所推重之姓也)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2013년 한국에서 출판된 한 번역서에서는 위 인용문을 “빛깔, 阿Q의 本籍이다. 그의 姓이 趙氏라면, 요새 고을에서 名望 있는 집안이라고 일컫기 좋아하는 전례를 따라, 『郡名百家姓』의 주해대로 ‘隴西天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었다. 이 때문에 本籍 역시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번역하며 그 郡望이라는 용어를 “名望 있는 집안”이라 해석하고 있다.⁴⁰⁾ 이 두 가지 사례 역시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의 내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岑仲勉과 牧野巽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郡望이라는 용어가 그것이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부터 해당 氏族 구성원들의 ‘遠祖의 本籍地’를 의미하였던 것인지, 아니면 David G. Johnson과 宋俊浩가 말하고 있듯이, 그 용어 자체가 처음에는 ‘한 郡 단위 안의 名望 있는 氏族’ 즉 ‘한 郡 단위 안의 望族’

38) 魯迅, 『阿Q正傳』第一章序’. 원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第四 是阿Q的籍貫了 倘他姓趙 則據現在好稱郡望的老例 可以照郡名百家姓上的注解 說是隴西天水人也 但可惜這姓是不甚可靠的 因此籍貫也就有些決不定.

39) 『百家姓』은 어린이들이 姓氏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으로 宋나라 시대에 작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郡名百家姓』은 『百家姓』에 실려 있는 각 姓氏에 郡望을 기록해 놓은 책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현재 중국에는 『百家姓』에 나오는 姓氏를 기록하고 그 하나하나의 姓氏 옆에 郡望을 기록해 놓은 책이 남아 있다.

40) 鄭子瑜, 『阿Q正傳』鄭箋, 中國社會出版社, 1998, 35쪽; 許世旭(역), 『阿Q正傳』(범우문고 194), 범우사, 2013, 25쪽.

을 지칭하다가 후대에 이르러 해당 氏族 구성원들의 ‘遠祖의 本籍地’를 가리키게 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중국의 역사 문헌에서 郡望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한 郡 단위 안의 望族’을 의미하는 경우보다는 해당 氏族 구성원들의 ‘遠祖의 本籍地’를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 郡望의 의미를 ‘望族’과 연관하여 정의하고 그 典據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또한 모두 해당 氏族 구성원들의 ‘遠祖의 本籍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중국의 역사 문헌에 나오는 郡望이라는 용어는, 중국 역사상 ‘5 姓7望’으로 불리었던 隴西李氏, 趙郡李氏, 清河崔氏, 博陵崔氏, 太原王氏, 范陽盧氏, 滎陽鄭氏와 같은 望族이나 또는 현대 시기에 편찬된 漢字語 辭典들에서 예시하고 있는 汝南周氏와 清河張氏와 같은 望族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望族들이 姓氏와 함께 칭하였던 隴西, 趙郡, 清河, 博陵, 太原, 范陽, 滎陽, 그리고 汝南과 같은 地名, 즉 그들 ‘遠祖의 本籍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淸나라 시기 학자인 王昶(1725~1806)은 이를 두고 “以郡望冠其姓”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⁴¹⁾

여하튼, 하나의 姓氏를 소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氏族을 구분하기 위해 생겨난 이 郡望은 宋나라 이후 중국 사회에서 사실상 그 사회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그저 ‘잊혀진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 郡望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本貫制度가 생겨나게 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현대 한국인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할 것 없이 本貫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한국인들은 姓氏와 함께 本貫을 가지는 것이 마치 當然한 일인 양, 아니 이보다 조금 심하게 표현해 보자면, 자신의 氏族을 밝히는데 있어 本貫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의 絶對 不可分の 것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古典 類

『後漢書』

『魏書』

『晉書』

『南史』

『北史』

『南齊書』

『舊唐書』

『新唐書』

41) 王昶, 『金石萃編』 卷88 ‘潘智昭墓誌銘’篇.

『資治通鑑』
 『清史稿』
 『元和姓纂』(林寶)
 『古今姓氏書辯證』(鄧名世)
 『資治通鑑補』(嚴衍)
 『十駕齋養新錄』(錢大昕)
 『金石萃編』(王昶)
 『丹鉛總錄』(楊慎)

2. 한국 논저

宋俊浩, 『朝鮮社會史研究』, 一潮閣, 1987.
 宮崎市定(저), 임대희(역), 『구품관인법의 연구』, 소나무, 2002.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崔珍烈, 「隋唐 本籍地封爵의 性格 - 門閥 · 郡望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中國古中世史研究』 20, 中國古中世史學會, 2008.
 崔珍烈, 「唐代 여성 爵號(邑號)의 性格 - 邑號와 本籍地 · 郡望의 關係를 중심으로 -」, 『大東文化研究』 6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常建華(저), 원정식(역), 「송 · 명 이래 종족제의 형성 이론에 대한 辨析」, 『강원사학』 22 · 23합집, 강원사학회, 2008.
 許世旭(역), 『阿Q正傳』(범우문고 194), 범우사, 2013.
 安光鎬, 「전통기 韓 · 中 地方志에 나오는 本貫 기록 비교 - 江西省 吉安府 『吉安府志』와 全羅道 南原府 『龍城續誌』를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8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安光鎬, 「전통기 韓 · 中 姓氏制度를 바라보는 두 知識人의 시각 - 宋나라 시대 鄭樵와 朝鮮 시대 柳馨遠을 중심으로 -」, 『사학연구』 113, 한국사학회, 2014.
 安光鎬, 「中國의 郡望制度和 韓國의 本貫制度 비교 - 中國의 清河崔氏와 韓國의 南陽洪氏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98, 부산경남사학회, 2016.
 安光鎬, 「清나라 시기 方東樹(1772~1851)의 시각을 통해 본 중국 郡望制度의 한 성격」, 『明清史研究』 47, 2017.

3. 외국 논저

Charles O. Hucker, *China's Imperial Past*, Stanford Univ. Press, 1975.
 David G. Johnson, *The Medieval Chinese Oligarchy*, Westview Press, 1977.
 David G. Johnson, "The Last Years of A Great Clan: The Li Family of Chao Chün in Late T'ang

and Early Sung,"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 1, 1977.

Patricia Buckley Ebrey, *The Aristocratic Families of Early Imperial China; A Case Study of the Po-ling Ts'ui Family*, Cambridge Univ. Press, 1978.

Patricia Buckley Ebrey,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China*, Cambridge Univ. Press, 1996.

守屋美都雄, 『六朝門閥の一研究: 太原王氏系譜考』, 東洋大學學術叢書, 日本出版協同, 1951.

池田溫, 「唐代の郡望表(上) - 九・十世紀の敦煌寫本を中心として -」, 『東洋學報』 42: 3, 1959.

池田溫, 「唐代の郡望表(下) - 九・十世紀の敦煌寫本を中心として -」, 『東洋學報』 42: 4, 1960.

谷川道雄, 『中國中世社會と共同體』, 國書刊行會, 1976.

宮崎市定, 『九品官人法の研究』, 同朋舍, 1977.

毛漢光, 「我國中古大士族之個案研究 - 瑯琊王氏」, 『歷史語言研究所集刊』 37, 臺北: 中央研究院, 1967.

岑仲勉, 『隋唐史』, 北京: 中華書局, 1982.

王仲榮, 「『新集天下姓望氏族譜』考釋」, 『敦煌吐魯番文獻研究論集』 2, 北京大學出版社, 1983.

唐耕耦, 「敦煌四件唐寫本姓望氏族譜殘卷研究」, 『敦煌吐魯番文獻研究論集』 2, 北京大學出版社, 1983.

章群, 「論唐開元前的政治集團」, 『(中華叢書)唐代研究論集』 1, 臺灣: 中國唐代學會, 1992.

常建華, 『宗族志』, 上海人民出版社, 1998.

夏炎, 『中古世家大族清河崔氏研究』, 天津古籍出版社, 2004.

岑仲勉, 『唐史餘藩』, 北京: 中華書局, 2004.

王力平, 『中古杜氏家族的變遷』, 商務印書館, 2006.

錢穆, 『國史大綱』, 北京: 商務印書館, 2008.

唐長孺, 「士族的形成和升降」, 『魏晉南北朝史論拾遺』, 中華書局, 2011.

馮爾康, 「南北朝的宗族結構與士族社會特質論綱」, 『中國宗族制度與譜牒編纂』, 天津古籍出版社, 2011.

常建華, 「宋明以來宗族制形成理論辨析」, 『宋以后宗族的形成及地域比較』, 人民出版社, 2013.

魯迅, 『阿Q正傳』

鄭子瑜, 『「阿Q正傳」鄭箋』, 中國社會出版社, 1998.

4. 공구서 류

平凡社 編, 『アジア歴史事典』, 平凡社, 1970.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1986.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編輯部 編, 『中國大百科全書(中國歷史 篇)』, 1992.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3.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檀國大學校出版部, 2008.
辭海編輯委員會 編, 『辭海』, 上海世紀出版股份有限公司, 2010.
商務印書館編輯部 編, 『辭源』, 商務印書館, 1979.

* 이 논문은 2017년 2월 23일에 투고되어,
2017년 3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7년 3월 2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4월 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국문초록
‘A Review on the Word “*Junwang*” in Modern Chinese Dictionaries’

An, GwangHo*

This paper reviews a historical word in Chinese history, *Chün-wang* which is generally translated as “Chinese Choronym” in English. Most modern dictionaries define the word as “the elite families of the prefecture”, but the general meaning of the word in Chinese historiography, even in historical citations of modern Chinese dictionaries for it, could be considered “the prefecture in which an elite family has its ancestral home”. Moreover, this paper will show such fallacies of modern Chinese dictionaries and show several differences with previous studies on *Chün-wang*.

[Key Words] Pon’gwan, Korean Choronym System(Pon’gwanchedo), Junwang, Chinese Choronym system(Junwangzhidu)

*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